

2024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전공역사 합격수기

경기도 역사 교사 최○○

0. 시작하는 말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신규교사가 되면서 수험생으로서의 기록을 남겨봅니다.
저의 수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참고삼아 저의 시험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졸업 후 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번의 1차 시험 합격과 총 4번의 시험 끝에 합격하였습니다. 참 힘들고 긴 시간이었는데 저의 기록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강의 일정 관련 공부 방향성

ㄱ. 기초 다지기 (1-2월)

초수 시절 종권샘의 1-2월 기초 강의를 듣는데 전공서의 내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들도 생소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들은 매우 심화된 내용들이고 그것마저 많이 까먹어 임용시험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 지식이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공서를 줄줄이 외우기보다는 교과서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충해야 합니다.** 교과서를 읽어도 좋고, 전공서 내용을 간단히 만들어 기초적인 부분과 용어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과서 내용은 N수생이 되어도 유익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꼭 지속적으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도 자세히 풀지는 못하더라도 최근 3개년 이상은 확인하면서 기출의 경향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본과가 역사교육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방법 등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전무하였던 점이 처음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스타그램(공부하는 내용을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다른 역사임용자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눈동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임용이나 일반 공부에 관한 공부법 콘텐츠도 최대한 많이 접하였습니다. 본인만의 공부법들이 이미 있을지겠지만, **임용시험에 최적화된 공부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공부법을 찾아서 다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ㄴ. 기본서 단권화 (3-4월)

1-2월에 전공서들의 내용들을 보다가 3-4월이 되면 기본서 즉, 종권샘이 제작한 정리된 교재를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것에 '단권화'라는 것을 하는데, 단권화란 기본서와 같은 한 책에 공부하고 정리된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모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다른 공스타 임용생들의 단권화 방식을 참고하며 조금씩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권샘의 기본서는 '모두가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수준의 용어해설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용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중요한 용어나 개념을 교과서나 전공서, 사전에서 찾아 정리하여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기본서로 확인하며 내용을 정교화 해나갔습니다. 이때부터는 다양한 사료나 한자사료들도 적극적으로 체크하면서 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ㄷ.기출문제의 중요성 (5-6월)

종권샘의 교육과정에서는 5월부터 기출문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는 시험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1월부터 시험을 보는 직전까지도 확인하면서 기출의 방향성을 숙지해야 합니다.** 기출 강의에서 기출 문제 자체와 관련 내용을 정리하게 되는데, 해설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료나 선지에서 보이는 다양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출에 나온 내용들은 꼭 기본서에 내용을 추가하고 언제 기출되었는지 그 연도까지 적으면서 기출의 흐름을 파악하였습니다.

ㄹ.실전문제 풀이와 파이널까지 (7-8월, 9-11월)

하반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실전문제풀이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실전 감각을 키우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답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못 접근하고 실수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학원의 모의고사를 모아서 함께 푸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종권샘 모의고사 하나에서 보는 주제들을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파이널까지의 공부흐름은 비슷하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회독 수를 늘리면서 공부 내용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2.개인적인 공부 방법

ㄱ.암기와 인출

임용시험의 방대한 공부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암기와 인출이 중요합니다. 문제 스테디, 백지인출, 모의고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한 내용을 인출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공부하면서 스스로 인출 문장(문제)를 노트에 적어두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인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정치 기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고민합니다. ‘삼사의 역할과 고려 시대와의 차이점은?’과 같이 질문을 만드는데, 공부한 내용에서 다른 내용과 연관시켜 ‘고려 시대와의 차이점’과 같이 확장시켰습니다. 이 질문들을 하루 평균 15-20개 정도 만들었고 하루 공부가 끝날 때 그것들을 줄줄이 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 7일 뒤까지 총 3번 이상은 해당 내용을 인출하였습니다. 인출은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기에 매우 좋기 때문에 작은 수첩을 활용해서 학원 통학 시간을 적극 이용하여 내용을 인출하였습니다.

ㄴ.한자 사료 보기

한자 사료 문제는 임용 문제에서 난이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권샘이 한자 사료를 함께 해석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종권샘이 해설하는 한자 사료 해석 방법을 참고하여, 우선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한자 사료 문제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문제들에서 어떤 한자 단서들이 중요했는지, 자주 나오는 한자어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한 사료들의 한자 사료, 뿌샘 등의 전공서 내에 있는 사료 그리고 시중에 임용생을 위한 한자사료 학습서도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3.2차 시험 준비

최근 2차 시험은 1차 성적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합격을 몇 번이나 합격해도 최종 불합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2차 시험 준비는 1차 시험이 끝나는 그 날부터 준비하며 기본적으로 스터디로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지역인 저는 수업 나눔이라는 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도 수험생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종권샘이 진행하시는 2차 수업 특강과 실연도 있지만, 그것만을 의존하기 보다는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듣고 스스로 수업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성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터디는 보통 3-4명으로 진행되고 수업실연과 수업나눔을 함께 진행합니다. 수업실연에 관한 다양한 서적도 요즘은 발간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특정 학생들의 특징을 배정하여 ‘영현이는 소극적이지만 오늘도 용기내서 말해줬네요~’와 같이 다양한 학생 특징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과서 수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업을 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 수준에서 모를 수 있는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해설하고 학생의 삶과 연결하여 유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학생중심수업의 핵심이자 교수학습능력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 대화에 있어서도 학생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학생들이 답만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영뚱한 내용도 교사가 보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것인데 **자신의 수업과 나눔을 반드시 녹화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낮간지러워 꺼리지만 수업 개선에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본 뒤에 개선해야 할 내용을 적어보며 성찰한다면 반드시 역량이 증진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수업 나눔을 처음 하면 많이 어색해서 잘 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녹화해서 보기도 하고, **자신의 말을 클로바노트 어플 등으로 녹음해서 불필요한 말을 자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다 수업 등에 기재된 **합격자들의 모범 사례들도 적극 참고해서 어떻게 말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나눔은 면접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수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성찰과 개선 방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4.수험생의 자기 관리

ㄱ.체력 관리

임용 수험 생활은 정말로 장기전이기 때문에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길 추천합니다.** 체력을 늘리기 위해 하는 운동 등은 스트레스 해소 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런닝과 요가를 일주일에 1회씩 하면서 체력을 관리하고 기분 전환도 하였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공부도 안 되고 멘탈도 흔들려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공부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12시간씩 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은 적다고 자책하기보다는 **8-9시간을 하더라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 시간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의 공부 시간에 정말로 집중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정리나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성찰해야 합니다.

ㄴ.멘탈 관리

긴 공부를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멘탈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험생활에 대한 불안감, 좁아지는 인간관계와 견디기 힘든 고립감, 사소한 불행 등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많습니다. 이 때, 개인적으로 중요했던 건 **내 멘탈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공부를 이유로**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고립감으로 힘이 든다면,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짧은 약속이라도 잡으면서 기분을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수험생활의 불안감이 있다면 같은 수험생들과 공유하며 같은 처치를 공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합격한 선생님들 그리고 저도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땅바닥만 보며 **견디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끝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에 대한 간접경험 등도 동기 부여와 힘을 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시간강사를 하며 학교의 아이들을 보는 게 마지막 수험생활의 유일한 낙이자 빛이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의 모습을 꼭 구체적으로 자주 떠올려주세요!

ㄷ.스터디 & 일 병행

저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며 스터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간은 제가 온전히 사용하고 싶어서 다른 일정에 메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스터디의 유무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성향과 성격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하면 공부 누락이 적어질 수 있고 다양한 관점의 지식과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도 있지만, 스터디만 중심이 되어 자신의 공부를 못하게 된다면 스터디 문제 제작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과감히 탈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 병행이란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4수 시절 시간강사를 했었습니다. 시간강사는 기간제 교사와 다르게 행정지도, 생활지도를 하지 않고 교과 수업만 하게 되기 때문에 공부에 더 시간을 쏟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무경력자가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강사는 상대적으로 업무 대비 급여가 적은 편이며 불필요한 부가 업무도 계속 생겨나고 아이들과의 교류가 한정적이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강사를 하는 시간이 힘든 시간을 견디는 데 큰 힘이 되어서 추천합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동기 부여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줬고, 수업을 하며 정리되는 교과 내용과 학생 수준에 대한 이해로 교수 능력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은 **자신의 상황과 가능한 기회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맺는 말

임용시험은 정말 길고 힘든 시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하기도 하고 끝없이 수험기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 분명히 가치 있고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힘든 수험생활 끝에 만날 아이들을 많이 상상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아이들을 대하는 일을 통해 진심으로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크고 많이 힘들겠지만 예비 선생님들의 노력이 반드시 보답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할게요! 학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들 :)